

제 6 호
2004.10



<http://mpu.ac.kr>

예수간호동문회보

발행인:공순구 / 편집인:김강미자 / 발행:예수간호대학 동문회
주소: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68-1(560-714) TEL.(063)230-7730 / FAX.(063)230-7790



▶ 6회 동문 1학년 가관식 직후 사진입니다.
다음호에는 7회 동문 사진이 실립니다.

<http://mp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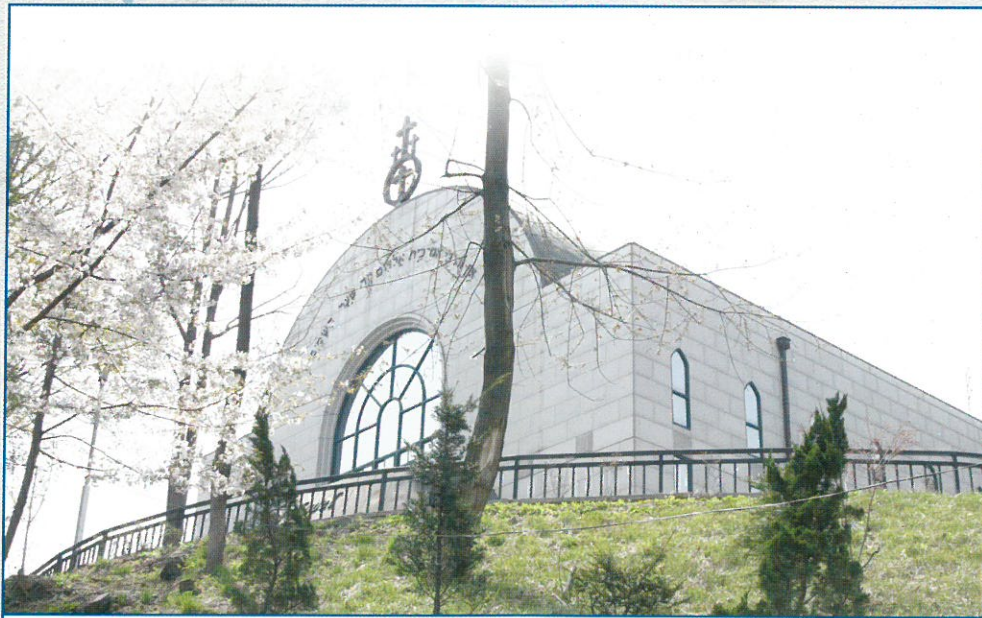


▶대학본부



▶프리차드홀(Pritchard Hall)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실, 종합강의실, 강의실, PBL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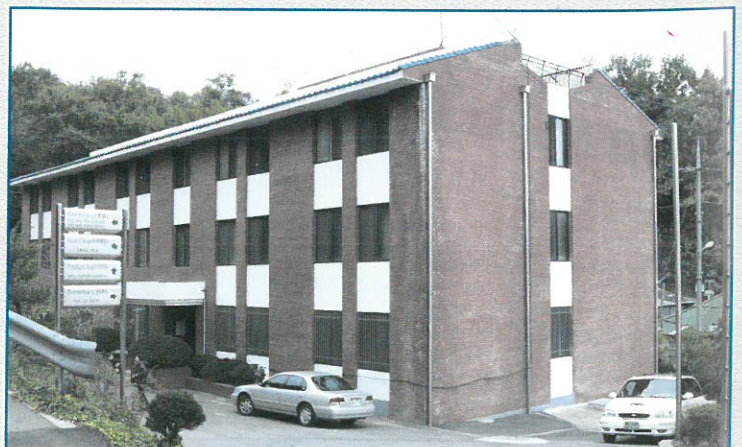
예수간호대학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예배실(Seel Chapel)



▶본관-켈러홀(Keller Hall) 노인건강센터, 기초과학실, 기본간호학실, 강의실, 보건실, NCLEX-RN강의실



▶신애학사 학생기숙사

모교 정문의 이모저모



▶▶▶ Contents

축시	녹원의 노래	정하숙	04
인사말		공순구회장	05
동문선교활동	수리남 선교현장에서	이성옥	06
동문탐방	1회 동문 좌담회	편집부	10
모교소식		편집부	12
동문소식		편집부	14
Home Comming	1회 동문 재상봉		15
	25회 동문 재상봉		16
	26회 동문 재상봉		16
동문님께 올리는 글		조민숙	17
모교발전기금 모금현황		동문회	18
동문회 고문 및 임원		동문회	20



정하숙 (25회)
예수병원 7층병동 수간호사

녹원(綠園)의 노래

바다 저편에서 떠오른 태양
하늘 한 가운데 서 있다
구름 가르느 갈매기 떼 태양을 향해 날개를 친다
그리도 순수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끓는 열정과 신앙으로
온 땅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느 가슴인들 벅차지 않으랴
우리가 부서진들 슬퍼할 리 있으랴

오십사년 전 녹원 동산에 심은 나무 한 그루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먼 길 떠나온 폭풍우 속 나그네
푸르른 나무 아래서 쉼을 얻는다
꿈을 이루기가 어찌 그리 어려웠던가
가까이서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우리의 소망
그러나 기필코 얻어낸,
그래서 더 소중히 지켜 나가야할 우리의 유업

우리는 늘 기억하리
선진들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들을
한 무리 마가렛의 끈질긴 생명력을
우리는 늘 도전하리
자유와 평화를, 진리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빛나는 눈망울로 무한한 가능성 보여주리
오랜 세월 값없이 받은 사랑 되돌리리
우리 사는 세상에 녹원의 전통과 향기를 널리널리 펼치리



공순구 동문회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2년 11월은 우리 모교가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해온 수년의 긴 날들을, 때로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의 늪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였더니, 우리 학교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뵈올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54주년 개교기념일에는

마지막 3년제를 마감하는 후배와 4년제로 입학한 후배들과 함께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제1회 졸업생 50주년 재상봉과, 제26회 졸업생 25주년 재상봉으로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50주년 HOME COMING DAY를 맞이하여 고국에 찾아오신 10여분의 동문과 가족들로 인하여 더욱 더 반가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70을 훌쩍 넘기신 1회 언니들이 그리웠던 이들을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모습들은 아직도 여전히 녹원동산의 소녀처럼 천진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대견스럽고도 의젓하게 성숙하여 이제는 우리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25주년 재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던 제25회, 제26회 졸업생들께도 가슴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모교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26회 졸업생들과 1회 졸업생 언니들께, 모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보내주시는 재미 동문회와,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재미동문회 전임 회장 김영자 동문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대학교에 요셉과 같은 양광자 총장을 보내주셨고, 그를 더욱더 겸손케 하셔서 더욱 크게 쓰시고자 질병에서 완쾌시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지면을 통하여 그동안 기도로 양총장님의 투병을 격려해주신 여러 동문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 동문님들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문 선교 사역의 현장

수리남

이성옥 20회동문

저는 모교를 졸업하고 재독간호사 시절 3년 (1975~78) 하이데베르크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국에서 오신 김창인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북한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후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금의 남편(안석렬 목사-총회 파송선교사)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이야기 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의대 지망생이었는데 특별한 계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안석렬 · 이성옥〉부부

결혼 후 선교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1987년 3월 6일 초등학교생인 자녀 소영, 위영이와 7개월이 채 안된 요한이를 데리고 첫 선교지인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사역한 후 1990년 3월 6일 수리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호의 일 밖에 몰랐던 저를 주님은 제가 가장 자신없어 하는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며 수리남에 도착한 첫주부터 시작된 유년 주일학교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대상이 한인, 한인과 현지인, 현지인과 인디언, 인디언과 흑인 순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 셋은 미국 큰덕에서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맡아 길러 주셔서 형님 내외분께 너무 감사하고, 어린 나이에 눈물로 보내야 했던 두 딸들(소영, 위영)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며 막내 요한이도 아빠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떠난지 17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힘 주셔서 지금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울부짖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사역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남편과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날까지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일 할 동역자입니다. 함께 수리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 드림(surinamemaria@hotmail.com)



선교현황

1987년부터 3년간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고, 1990년 수리남에 와서 한인교회를 담당하면서 1991년에는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여 한인교회와 병행, 우리가 오기 전 이미 건축을 시작 하였던 한인교회를 헌당하였다.



〈2004년 여성성경학교-마따에서〉

1996년 한인교회를 물려주고 현지인 교회도 내어주고 인디언교회 사역만 전념하여 1998년 삐깬 싸론(Pikien Saron)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2000년 마따(Matta)마을 추장을 비롯하여 천주교인들이 예배실로 사용하던 장소를 빼앗고 우리를 내쫓으려 하여 교회 건축을 결정, 4월에 마따 교회를 헌당하였다.(삐깬 싸론 교회에서 적은 액수나마 건축을 위해 헌금하여 주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동전이나 적은 지폐를 들고 와 헌금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한 2000년 10월 산띠 그롱(SantiGron-네덜란드령 당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 왔다가 정글

로 도망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음) 흑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교회로 사용하던 진료소 건물을 수리하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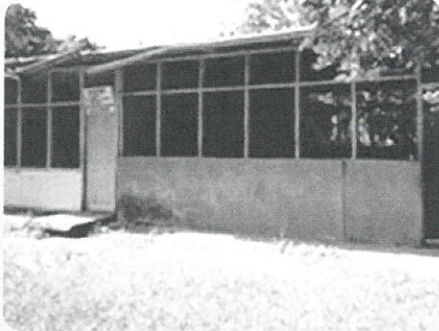
〈어스플레이트(Geyersvlijt)교회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삐깬 싸론 교회 주일학교〉

로서는 선교지 한 곳을 잃은 셈이나 그곳 추장과 의논하여 2004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선교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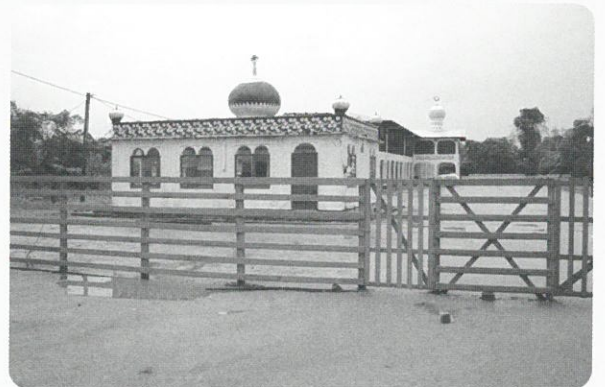
〈싼띠그롱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2001년부터는 중학생이 되면 도시에 나와 공부해야 하는 정글에 사는 인디언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안식년을 떠나게 되어 2년만하고 중단하다가 한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서울 개봉동 소재, 이종영 목사 시무)에서 재파송을 받고 2003년 12월 수리남에 다시 돌아와 현재는 마다와 빼긴 두 마을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기숙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리남 지도〉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브라질 위에 있는 가이아나 3국중 가운데 나라이다. 왼쪽에는 영국이 다스리던 가이아나, 오른쪽에는 지금도 프랑스령으로 영화 뼈뼈용에 나오는 감옥이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다.



〈이슬람교 신학교〉

수리남은 미국처럼 이민으로 형성된 나라로 동양과 아프리카가 만나곳이며, 영국이 다스리다가 네덜란드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용어〉가 화란어로 되어 있다.



〈기후〉는 열대우림성 기후로 1년내내 더우며 다만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면적〉이 남한의 약1.5배이지만 현재 수리남에 사는 사람은 50만명밖에 안되며, 네덜란드에는 구테타를 피해서 가 있는 수리남 사람 약 20만명이 살고 있다.

〈정치적〉으로 1975년 네덜란드로 독립한 수리남은 3세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원(세계17위)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수리남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천주교가 1683년부터 들어와 거의 모든 마을들이 천주교화 되어있고 기독교는 그보다 약 50년 후인 1722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했다. 지금도 정글에 사는 인디언들(전체 인구의 2%)과 흑인들이 잘못된 천주교의 신앙 밑에서 살면서 진정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북미, 중미, 남미 국가중 인구 비율로 따져 아시아인들이 많으며(51%) 특별히 이슬람교(19.9%)와 힌두교(27.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1997년 12월 2일 국회가 이슬람 개발은행 회원국이 되기로 결정하여 52번째 회원국이 됨으로 이슬람교에서 각 마을마다 사원과 진료소를 지어주며 이슬람화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있는 상태이다.



〈힌두교 사원〉



〈어머니날 마따에서〉

〈선교 후원금 입금처〉

- 통장명 : 이성애
- 은행 : 신한은행 358-02-081144
- 입금확인 연락처 : 후원회장이나 이성애 집사(011-445-1830)에게 연락바람



제1회 선배님들을 모시고

- ▶ 일 시 : 2004년 5월 24일 오후 2시
- ▶ 장 소 : 모교 예배실 지하 1호실
- ▶ 참석자 : 제 1회 재상봉 동문 - 김옥은(경남 하동), 김정숙(경기 구리), 박삼주, 오정옥(로스엔젤레스), 은종국(필라델피아)
- ▶ 대 담 : 편집위원 (제 25회 정하숙 동문)

정 : 안녕하세요?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가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졸업 50주년 재상봉을 위해 해외에서 까지 오셔서 개교 54주년 기념예배를 빛내주셨는데요. 1회 졸업생 총 10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신다니 주님 축복이 아주 크신 학번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웃음)

특히 김정숙 동문께서는 오늘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정숙 : 기도원을 설립하고 한 집안에 조카까지 7명이나 간호사가 있다고 이렇게 과분한 상까지 받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또 학교가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고 미래 설계를 야무지게 아주 잘 계획한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김,박,오,은 : 정말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고생했던 얘기는 먼 꿈나라 같아.

정 : 그때 그 시절 추억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도 구 건물을 보기만 했지 직접 현장에서 뛰지는 않았거든요.

김옥은 : (가방에서 수첩과 사진을 꺼내시며) 우리 학교가 얼마나 hard training을 했는지 여기 1954년에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간호술 (practice) 경연대회에서 삼주가 1등하고 나는 2등을 했지. 다음해에도 우리 학교가 1등 했을 걸. 또 나는 학생때 위생 포스터 대회에 나가서 이승만 대통령상도 탔는데 그건 사진도 자료도 없어 아쉬워.



박삼주 : 그래. 그때 마가렛 프리차드 교장님은 성경을 가르치셨고 간호기술을 조덕례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고된 훈련이었어. 어떻게 그 힘든 공부와 실습을 했는지 몰라. 우리 거의 미국에 대한 동경과 간호사에 대한 선망으로 입학했었는데...

정 : 그때 환자들은 어땠어요?

김정숙 : 그때는 빨찌산 환자도 많았고 위생도 매우 불량해서 공부는 2시간 밖에 못하고 거의 병원에서는 몸에 때가 콩알만하게 낀 환자들 목욕시키는 게 일이었지. 우리는 조산원 자격증을 다 땀는데, 어느날 난 야기 받으러 자전거 타고 기숙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가다가 구멍가게 좌판에 부딪쳐 나도 다치고 가게 유리도 깨지고 그랬던 게 안 잊혀지네.

은종국 : 병원에 외국서 원조 온 신약이 오면 지하실 복도에 환자들이 가득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



니며 1병동 32명을 혼자 커버하며 씻기고 카테터하고 했지. 고아도 왜 그리 많았는지 얘기 기저귀랑 주사기랑 직접 씻어 Autoclave 소독해서 사용하고. 어디서 그런 정열이 나왔는지 아마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 일거야.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 피곤함도 잊고 달려가곤 했으니까.



오정옥 : 6.25 전쟁때라

Amputation 환자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내 형제같이, 내 가족 같이 돌봤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pentom pain을 완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간호정신이 더 깊어진 것에 감사해. 나는 줄 것이 없으니까 사용한 빈 페니실린 약병을 씻어 동산에 핀 제비꽃을 한 주먹씩 꽃아 내 환자 병실마다 갖다준 것도 기억나고. 지금도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지 몰라. 돌아가면서 사회보고 기도하고...

또 그때 좋은 영화가 많았어. 어느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를 보고 기숙사에 늦게 들어왔는데 혼자 지 않으려고 살짝 들어와 대야에 물을 받아 목욕하는 것처럼 찰박찰박거렸어.

김정숙 : 나는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시체실 옆 병동에 결핵으로 격리된 애기 젖을 주러 가야 하는데 그쪽에 뭐가 검은 긴 것들이 나풀거리며 있는거야. 불도 반짝반짝하지, 꼭 도깨비 불같이. 그래도 애기를 생각하며 가슴 두근두근 하며 눈감고 가까스로 뛰어가 임무를 완수하고 왔는데 글썽 다음날 보니까 소각장 옆 굴뚝에 소각하러 널은 빨래가 걸쳐 있었던거야. 불이 반짝였던 건 밑에 있던 큰통(drum)들이 바람에 움직이면서 빛을 받아 그랬던거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해.

정 :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고귀한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하다가는 한이 없을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정옥 : 세대는 변하고 악해지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자란 동생들이 부디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일꾼들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종국 :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전령이 되시기를...

박삼주 :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기에 여러분들도 주님 닮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되어 모교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정 :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모교를 위해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행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후 선배님들은 학교 투어를 마치고 1회에서 6회까지의 동문과 함께 단양팔경 여행을 떠나셨다)

학교의 산 역사이자 힘든 세월을 인내와 신앙으로 승리하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오늘따라 학창시절의 순수함과 사랑으로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추억의 오솔길 함께 걸으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동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주안에서 평안하시길...

교표변경

UNIVERSITAS MARGARET PRITCHARD



4년제로 개편 승격하여 변경된 모교 교표

교표해설

우리대학교의 교표 바탕을 이루는 남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중앙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3개의 왕관중에 왼쪽은 학사, 오른쪽은 석사, 중앙 위쪽은 박사를 의미하는 승리의 왕관을 나타낸다. 교표 밑 부분 좌·우에는 우리대학의 교훈인 사랑과 진리를 라틴어 AMOR, VERITAS로 각각 표기하였다.

교표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는 선교사이신 Margaret F. Pritchard 초대교장을 기념하여 지은 교명을 라틴어 UNIVERSITAS MARGARET PRITCHARD로 표기하였고, 우리대학 설립년도인 1950과 월계관으로 승리를 상징하였다.

1. 대학본부 신축완공 봉헌예배

4년제 예수간호대학교로 개편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학본부 건물이 완공되어 2003년 4월 22일 하나님께 준공예배를 드렸다.

2. 4년제 승격 및 개교 5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2003. 6월 4일 개교 제 53주년과 4년제 대학교 승격 기념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장(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인 김의숙 박사의 “보건의료개혁과 국민옹호자로서의 간호의 역할전환”이라는 주제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간호사업, 노인간호사업에 대한 발제강연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 개교 53주년 및 54주년 기념예배 및 동문 재상봉

제 25주년을 맞은 25회 졸업생이 2003년 5월 26일 53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학교에 전달하였고, 김강미자(15회)교수가 근속30년 표창을 받았다. 2004년 제54주년에는 1회로 졸업하신 대선배님의 50주년 재상봉을 맞아 해외에서 대거 참석하시어 반가운 만남과 모교에 금일봉을 전달하였고, 제25주년을 맞아 재상봉을 한 26회 동문들이 1,000만원을 모교의 발전을 위해 쾌척하였다.

4. 국제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코코모 간호대학에서 2003년 5월과 2004년 5월에 교수3인과 5명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였고, 우리대학에서는 황성자교수의 인솔하에 9명의 학생이 2004년 2월9일~20일까지 코코모 간호대학에서 2주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5. 양광자 총장 이프카니스탄 방문

양광자총장은 2003년 7월 한-아프간 친선협

회의 초청으로 이프카니스탄을 방문하여 교육부, 카불의대를 돌아보고 민간의료 선교 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Foundation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총장님의 건강을 완전하게 되찾도록 기도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6.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수방법을 학생실습현장의 임상지도 강사들에게 소개하고 워크샵을 통하여 실제 학습경험을 교수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수교수가 간호학의 임상실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상실습교육과정 개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7. 미국 New York Stony Brook 대학교 방문교수/정정숙 교수

정정숙(23회)교수는 2002년 8월~2003년 8월까지 방문교수로서 영적간호중재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와 기본간호학 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돌아왔다.

8. 에디오피아 의료선교파송/황성자 교수

황성자(16회)교수가 1년간의 연구년을 에디오피아병원(서울 명성교회 후원)의 간호부장으로서 병원의 개원과 더불어 간호부서의 Set-up과 간호실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2005년 7월까지 봉사하기 위해 떠났다.

9. 교환교수 연수차 도미/윤진 교수

윤진(27회)교수가 연구년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간호대학으로 2004년 7월부터 1년간 교환교수로 연수차 떠났다.

1. 공순구 동문회장 모교 이사장 취임

제 2회 공순구 동문회장(전 예수병원 간호부장)이 2004년 9월 6일 모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평생을 오직 한길 간호에 전념하신 공순구 동문회장은 2008년 3월 27일 까지 임기동안 더욱 모교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2. 제 15회 동문 모교 김강미자 교수 대한간호협회 전라북도 간호사회 회장 취임

모교 김강미자 교수가 2004년 3월 대한간호협회 전라북도 간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공순구 (2회) 회장 이후 16년만에 우리 동문이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김강미자 교수는 2006년 2월까지의 임기동안 전북간호사회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3. <경축!>모교 동문, 최초로 가족이 국회의원 당선되다 · 28회 소성섭 동문



제 28회 소성섭 동문(전 예수병원 책임간호사)의 부군인 이광철님(48세, 열린우리당)이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성섭 동문과는 80년 한 교회를 같이 다닌 인연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민주화의 시위 현장에서 의기투합하여 7년 연애 끝에 1987년 4월 11일 결혼에 골인하여 딸(산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부군 이광철 국회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치인으로 바르게 살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당선되기까지 기도로 후원해준 많은 예수간호대학교 동문들께 감사한다며 예수간호대학교와 예수병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표명하였다.

4. 부산 세계로 병원 간호부장 · 29회 김경희 동문



제 29회 김경희 동문은 간호대학 1학년때 CCC 활동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수련회때 의료선교사를 꿈꾸었다. 졸업후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부산춘해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부산의료훈련원의 일원으로 해외단기 선교를 다니다 예수병원 외과 출신인 "김상순" 원장을 만나 암 전문 병원인 세계로 병원 간호부장이 되었다. 이 모든 비전과 기본간호의 실현이 예수간호대에서 받은 training의 결과라고 하면서 모교의 신앙에 기초한 전문교육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또한 고신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인재로, 부산시 보험심사간호사회장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 세계로병원 간호부장, 부산의료선교회이사, 춘해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졸업 제 50주년 동문 재상봉

1회 동문 재상봉

2004년 5월 24(월) 오전 11시 Seel Chapel에서 개교 54주년 기념 예배 및 졸업 50주년 동문 재상봉이 있었다. 10명의 동문중 5분이 해외 각지에서 참석하였고 발전 기금을 양광자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예배 후 1회에서 6회까지 동문 16분은 단양팔경을 함께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졸업 제 25주년 동문 재상봉



25회 동문 재상봉

2003년 5월 26(월) 오전 11시 Seel Chapel에서 25회 동문 재상봉이 있었다. 20여명의 많은 동문들이 각지에서 참석하였고 4년제 승격과 더불어 발전된 학교의 모습에 기뻐하였다. 동문들은 발전 기금을 양광자 총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스승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부안 격포 채석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6회 동문 재상봉

2004년 5월 24(월) 오전 11시 Seel Chapel에서 26회 동문 재상봉이 있었다. 17명의 동문들이 각지에서 참석하였고 발전 기금을 양광자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만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옷을 걸쳤고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는 데다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김혜자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중에서-

며칠전 저는 유명 텔런트 김혜자의 저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을 읽고 치열한 이 세상을 무심코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기 나름으로 엮여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어진 생명 속에서 무심코 열심히 사는 사람,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바쁘게 사는 사람, 이도저도 아닌 그저 그러저럭 세월을 땀땀질하며 사는 사람 등등이 있겠지요....

제가 벌써 우리 예수간호대학을 졸업한지 25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철이 들고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 알콩달콩 행복했던 청년시절의 학교와 기숙사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세상은 참 눈부시게 발전했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묶어두었던 예수간호대학은 이제서야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른 큰 대학들과는 달리 그것도 여자만으로 3천300명의 동문들이 배출되기까지 52년이란 세월이 흘러야했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대학은 2002년 11월 16일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간호학과 단일이면서 자력으로 이뤄낸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우리 동문들이 기도와 헌신적인 후원 또한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내실있고 알찬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어야겠고 더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음악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기존의 졸업생들을 위한 RN-BSN과 대학원등을 신설할 준비에 있는 등, 양적·질적 팽창을 위해 여러 동문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학교보다 우리학교가 더 발전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변마지 간호선교사에 의해 예수이름으로 세워진

선교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만큼 선교의 힘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또한 어디엔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씨를 뿌리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 각납니다.

“주위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옆집이 잘되어야 우리집도 환해진다.” 이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낮은 얘기가 아니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한사람의 실천이 이웃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계적인 월마트 사장은 “배 풀면 다 네게로 온다.”라는 인생철학으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어떤 철학으로 경영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성심을 다해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중에서 저를 감동시킨 또한 귀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김혜자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중에서-



조민숙(27회)

예수병원 원무과 보험심사계장

● 남부방법 ●

조흥은행 702-01-112407
예금주 공순구
연락처 063) 275-5288, 230-7756

대학 발전기금 모금현황

2004년 8월 31일 기준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보내주신 국내외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0월26일 ~ 2002년 8월24일까지의 모금운동에 참여하신 동문의 이름은 예수간호 동문회보 제5호에 기재되었으며 그 이후에 계속 모금에 참여한 동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모금기간 : 2002년 8월25일 - 2004년 8월31일

연번	회기	성명	발전기금	연번	회기	성명	발전기금	연번	회기	성명	발전기금
1	1회	김정숙	1,100,000	31	10회	문옥자	120,000	61	24회	박정숙	\$100
2	1회	박삼주	602,047	32	11회	오은자	200,000	62	24회	이혜숙	\$100
3	1회	박혜옥	100,000	33	12회	김영신	\$100	63	25회	김은숙	100,000
4	1회	은종국	\$300	34	12회	김영실	\$250	64	26회	양복순	100,000
5	2회	공순구	1,200,000	35	12회	이광자	100,000	65	27회	이화주	100,000
6	2회	천옥순	100,000	36	12회	김기자	100,000	66	27회	심명희	\$200
7	2회	김은옥	350,000	37	12회	김성란	200,000	67	27회	정명희	1,000,000
8	2회	이덕례	50,000	38	12회	김영자	\$100 + 165,410	68	28회	장자숙	\$200
9	3회	구원례	\$100	39	12회	윤자애	200,000	69	28회	김경신	100,000
10	3회	박봉옥	\$100	40	13회	윤명숙	\$250	70	28회	소성섭	\$100
11	4회	이인수	100,000	41	14회	최학례	100,000	71	30회	신차남	2,000,000
12	4회	황희심	100,000	42	14회	정숙자	100,000	72	32회	국형지	100,000
13	4회	양순복	1,200,000	43	15회	김천희	\$1,000	73	무명	\$200	
14	4회	윤주인	\$100	44	15회	오연순	\$100	74	16회	동문	100,000
15	4회	김완주	\$1,000	45	15회	김강미자	100,000	75	50회	동문	4,500,000
16	4회	유애수	\$100	46	16회	김금자	100,000	76	51회	동문	5,000,000
17	5회	심영희	\$100	47	17회	최선숙	\$100	77	대전동문	500,000	
18	5회	이준례	100,000	48	17회	박정순	100,000	78	전북보건진료원동문	100,000	
19	5회	김봉옥	156,540	49	17회	김명숙	200,000	79	전북대학교병원동문	3,000,000	
20	5회	엄재정	725,000	50	18회	류금주	100,000	80	남원의료원 동문	1,000,000	
21	6회	유복희	\$100+\$120,000	51	19회	정복원	\$100	81	뉴저지, 뉴욕동문	\$200	
22	6회	정정자	\$100	52	20회	김봉선	100,000	82	해외동문	3,867,938	
23	6회	양광자	100,000	53	21회	한경희	\$100	83	1회 재상봉	김정숙	1,000,000
24	6회	김연자	100,000	54	21회	차혜영	1,000,000	84	1회 재상봉	김옥은	1,000,000
25	6회	현순영	\$100	55	21회	홍의숙	\$100	85	1회 재상봉	박삼주	1,154,400
26	6회	이도임	240,000	56	22회	유현애	\$100	86	1회 재상봉	오정옥	577,200
27	7회	이원자	\$100	57	22회	이은숙	200,000	87	1회 재상봉	은종국	1,154,400
28	7회	염정임	200,000	58	23회	방태순	\$1,000	88	25회 재상봉	10,000,000	
29	9회	권난초	100,000	59	23회	전영신	100,000	89	26회 재상봉	10,000,000	
30	10회	진청자	\$100	60	23회	최광순	\$300				

*양광자 총장은 취임식에 들어온 축하금 전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명단에는 동문만 게시되었습니다.
*모교에서 근무하는 전 교수들이 대학발전기금으로 개인당 천만원을 약정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비 납부현황

(이사회비는 모금발전기금으로 보냅니다.)

기간 : 2002. 8. 25 ~ 2004. 8. 31

연번	회기	성명	발전기금	비고	연번	회기	성명	발전기금	비고
1	2	김은옥	500,000		16	23	서인숙	100,000	
2	5	이준례	300,000		17	23	전영신	100,000	
3	5	엄재정	50,000		18	23	채영희	100,000	
4		이라, 송영원	700,000	총2회	19	24	김순애	100,000	
		유영삼, 김정숙			20	24	김숙희	100,000	
5	14	정숙자	380,000		21	24	배은경	100,000	
6	18	박흥순	50,000		22	24	황영숙	100,000	
7	18	류금주	100,000		23	25	유금희	100,000	
8	19	한금녀	100,000		24	25	유필숙	100,000	
9	20	장은숙	100,000		25	25	이정희	100,000	
10	20	최옥주	10,000		26	25	정하숙	100,000	
11	21	서정자	170,000		27	27	엄정이	100,000	
12	21	최정애	60,000		28	27	윤매옥	60,000	
13	22	김형자	50,000		29	28	이옥주	60,000	
14	22	송성희	100,000		30	29	이효실	100,000	
15	22	조점엽	100,000		31	31	고선화	60,000	



예수간호대학교 동문회 고문 및 임원

(임기: 2004. 6. 1 ~ 2006. 5. 31)

고문

전학장	엄재정 (5회)
현총장	양광자 (6회)
동 문	김정숙 (1회)
동 문	박혜옥 (1회)

임원

회장	공순구 (2회)
제1부회장	김성란 (12회)
	이인수 (4회)
부회장(전주)	이준례 (5회)
	박순옥 (6회)
	이광자 (12회)
부회장(서울)	고유근 (6회)
부회장(광주)	김연자 (6회)
부회장(대전)	이 라 (8회)
부회장(강원)	오은자 (11회)
부회장(경·대구)	최학례 (15회)
	류금주 (18회)
총 무	한혜실 (26회)
	김강미자 (15회)
서 기	정여숙 (22회)
	김봉선 (20회)
회 계	전영신 (23회)
	김은숙 (25회)
감 사	김금자 (16회)
	김옥숙 (22회)



김강미자 · 김봉선
정하숙 · 양복순 · 조민숙